

양현종, 올해도 슈퍼스타의 길 걷는다

지난해 첫 20승·정규·한국시리즈 MVP 석권에 골든글러브까지
연봉협상서도 23억 대박... 올해 자신감·마운드 운영 능력 기대감

20승 투수 양현종(30·KIA 타이거즈)이 새해에도 슈퍼스타의 길을 걷는다. 양현종에게 2017시즌은 최고의 해였다. 생애 처음으로 20승을 따냈다. 한국시리즈 2차전 1-0 완봉승과 5차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세이브를 수확해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시리즈 MVP와 정규리그 MVP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최초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연봉협상에서도 23억 원의 대박을 터트렸다. 데뷔 11년만에 20억 원 대 연

봉을 실현하며 투수 연봉 1위에 올랐다. 최다연봉자(25억 원)인데 이데호를 넘지 못했지만 발표하지 않은 옵션을 적용한다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현종에게 2018시즌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작년 시즌의 실적을 앞세워 대한민국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인기도 급상승했다. 어디를 가나 박수와 사인 요청이 쇄도했다. 동시에 이제는 슈퍼스타에 걸맞은 성적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었다. 슈퍼스타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새로운 것이다. 양현종은 지난 4년 동안 특급 투수의 길을 걸었다. 2014년 16승 평균자책점(ERA) 4.25, 2015년 15승 ERA 2.44를 따냈다. 2016년은 10승(ERA 3.68)에 그쳤지만, 2017년 첫 20승에 ERA 3.44를 기록했다. 연평균 30경기 선발 등판해 평균 15승을 거두었고 각각 171%·184%·200%·193%이닝을 소화하는 내구성을 자랑했다. 작년에

는 9이닝당 볼넷도 2.09개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30경기 선발등판과 15승, 평균 190이닝을 소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자책점은 2점대 목표였지만 3점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헛터 노에시와 함께 KIA 선발진의 원투펀치로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KIA의 정상수성도 결국은 양현종의 어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현종에 대한 도전도 거세다.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넥센 박병호, LG 김현수, K 황재균의 입단으로 상대 타선이 강해졌다는 점이 있다. 공교롭게도 양현종은 작년에도 세 팀을 상대로 10승 무패를 거두었다. 넥센전 5경기 ERA 1.69 3승, LG전 3경기 3승 ERA 2.79, kt전 4경기 4승 ERA 3.42의 천적 투수였다. 이제는 세 타자의 가세로 상대 타선의 짜임새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병호는 40홈런 이상이 가능한

홀런타자이다. 김현수도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 타율이 무난하고 황재균도 3할과 20홈런이 가능하다. 양현종에게는 분명히 까다로운 타자들이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단졌다. 점과 맞물려 민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양현종이 매년 진화를 했다는 점에서 위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작년 한국시리즈를 거치며 절정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위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1-0 완봉승과 우승 세이브를 기여로 작성했다. 자신감과 마운드의 운영 능력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도 기대감도 크다. 자신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출발선에 나서는 양현종이 2018년에도 슈퍼스타의 길을 걸을 것인지 주목된다.



“류현진, 2018 다저스 제5선발”...커쇼·힐·우드·마에다 함께

팀내 선발 유망주 성장세 따라 기회 나눠가질수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올 시즌에도 다저스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과 로스앤젤레스 미디어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등은 10일(한국시간) 2018 시즌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점검하며 류현진을 제5선발로 꼽았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알렉스 우드, 마에다, 겐타, 류현진이 5인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다저스 선발진은 정규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했다”며 “다저스의 선발 5명은 지난 시즌 최소한 24번 이상의 선발 등판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도 “자유계약선수(FA)인 다저스 유와 계약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저스에 선발 투수는 충분하다. 커쇼와 힐, 우드, 마에다, 류현진이 견재하다면서 류현진을 로테이션에 포함했다. 부활한 류현진이 지난 시즌에 이어 다저스 마당 선발진을 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지난해 후반 트레이드로 다저스에 합류한 다르빗슈의 다저스 잔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선발 요원이던 브랜던 매카시와 스콧 카즈미어도 트레이드되면서 류현진은 지난해보다 안정되게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2015년 어깨에 이어 2016년 팔꿈치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2년의 공백을 가졌다. 지난 시즌 부상을 털고 복귀해 5승9패 평균자책점 3.77로 재기에 성공했다. 후반기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품



게 했다. 다만 5선발인만큼 팀내 선발 유망주의 성장세에 따라 기회를 나눠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시즌 한때 다저스는 사실상 6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류현진은 등판 일정이

불규칙하게 편성되기도 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류현진은 다저스와 4년 계약이 만료된다. FA 자격을 얻는 류현진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정조국, 강원FC 캡틴 됐다...좌근호·우승용 함께 ‘헌신’

“주장 자리, 부담보다 동기 부여 될 것 기대”

정조국(34)이 2018시즌 강원FC의 캡틴으로 낙점됐다. 송경섭 감독은 10일 “신중하게 코치진과 상의하고 결정했다. 정조국에게 올해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을 화합하는 중책을 맡겼다. 정조국이 책임감을

갖고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상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다. 정조국이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한다. 책임감이 있는

선수라 주장의 자리가 부담보다는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정조국은 2016시즌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20골을 넣으며 득점왕, MVP, 베스트11을 차지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강원으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최종

기록은 18경기 7골 1도움이다. 2018시즌을 앞두고 주장으로서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정조국은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 강원이 원팀으로 거듭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밀려들어 주겠다. 신입 선수들이 하루 빨리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공격수 이근호, 미드필더 김승용, 수비수 김오규는 부주장으로 정조국을 보필한다. 뉴스



2년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한 박병호가 9일 오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영사에서 고향용 단장으로부터 넥센 모자를 받고 있다.

귀환한 ‘홀런왕’ 박병호, 2년새 목동이 고척으로 바뀌었는데...

2년 만에 넥센 히어로즈로 돌아온 박병호(32)의 다짐은 남달랐다. 팀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개인기 록 욕심에 말을 아끼는 것은 미국 진출 전과 같았지만, 그 모습 이전에서는 더욱 굳어진 각오가 감지됐다. 지난해 11월 말 넥센과 계약 사실을 발표한 박병호는 서류 정리작업이 늦어지면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국내 컴백을 결심한 박병호는 넥센과 연봉 15억원에 계약했다. 이날 그랜드ไฮ얏트인천 호텔에서 박병호는 “다시 한 번 넥센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홀런왕 경쟁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박병호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활약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홀런왕에 등극했다. 4년 연속 홀런왕은 사상 최다다. 2012년 31개, 2013년 37개의 홀런으로 홀런왕에 오른 박병호는 2014년과 2015년 각 52, 53개의 홀런을 터뜨렸다. 2년 연속 50개 이상 홀런을 친 박병호가 지난 시즌 내내 거포 부재에 시달린 넥센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박병호가 미국으로 떠난 2년간 홀런왕좌를 지킨 최정(31)과 박병호의 ‘토종 홀런왕’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홀런 40개를 쏘아올려 에릭 테임즈(당시 NC 다이노스)와 함께 공동 1위에 오른 최정은 올해 46개를 때려내 2년 연속 홀런왕을 차지했다. 박병호는 “넥센에서 뛰는 동안 항상 목표로 잡은 것은 전 경기 출장이었다. 전 경기 출장을 하려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 미국에 있는 2년간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부상이 있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 것이 있다. 올해도 전 경기 출장을 목표로 삼고 하고 싶었던 야구를 마음껏 펼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위치가 된 박병호는 ‘넥센 선수단 연령층이 많이 어려졌다. 현재 넥센 팀 분위기를 잘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후배들을 잘 챙기겠다. 힘든 후배 이야기도 들어주고 싶고, 코칭스태프가 경기 중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새로운 홈구장은 “많이 궁금하다”. 박병호는 “2015년 프리미어12를 앞두고 쿠바와 경기를 한 것이 유일하다”며 “홈구장에 대한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다. 캠프에 다녀온 후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

IOC,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환영

“위대한 일보 전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일 북한이 내달 개막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서 위대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IOC 측은 북한이 참가 준비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후 어떤 북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OC 측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의하겠다”

며 “논의를 거쳐 IOC 집행위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남북한 선수가 함께 행진하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어떤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 시에 정해져야 할 사항 등을 사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IOC의 입장이다. 전해성 통일부 차관은 북한 측이 평창 올림픽에 보낼 대표단에는 관계자와 선수, 코치,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뉴스